

정릉보건지소 언론보도 사항

연번	구분	언론사	보도제목	보도일
1	온라인 신문	문체부 정책브리핑	아이낳고싶은동네가있다?	2017. 2. 4.
2	일간지	한겨레신문	성북구,전국첫아동전용보건지소	2017. 3. 2.
3	일간지	아시아경제	성북구,전국최초아동전용보건지소문열어	2017. 3. 3.
4	일간지	헤럴드경제	성북구전국최초'아동전용보건지소'건립	2017. 3. 3.
5	일간지	한강타임즈	성북구,출산부터육아까지원스톱서비스'정릉아동보건지소'운영시작	2017. 3. 3.
6	일간지	시민일보	성북구,전국최초아동전용보건지소6일부터운영	2017. 3. 3.
7	일간지	천지일보	성북구,정릉에전국최초'아동보건지소'설치...6일부터운영	2017. 3. 3.
8	일간지	뉴스1	전국최초아동전용보건지소성북구에문연다	2017. 3. 3.
9	일간지	신아일보	전국최초아동전용보건지소성북구에문연다	2017. 3. 5.
10	TV	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아동전용보건지소'전국최초개소	2017. 3. 7.
11	TV	KBS뉴스7	출산에서육아까지...국내첫'아동전용보건소'	2017. 3. 17.
12	TV	KBS 뉴스광장	출산에서 육아까지...국내 첫 '아동 보건소'의 실험	2017. 3. 18.
13	일간지	동아일보	육아맘어깨다독여주는'동네친정언니'	2017. 3. 30.
14	일간지	서울신문	저출산극복'佛롤모델'첫시도... '아이바보'된김영배성북구청장	2017. 4. 26.
15	일간지	헤럴드경제	성북구'정릉아동보건지소'인기... "이유있네"	2017. 4. 27.
16	일간지	아시아경제	성북구정릉아동보건지소인기	2017. 4. 27.
17	일간지	전국매일	정릉아동보건소'저출산극복허브'우뚝	2017. 4. 28.
18	일간지	시대일보	출산에서 육아까지 원스톱 서비스	2017. 4. 28.
19	일간지	산경일보	성북구,부모·아이위한'정릉아동보건지소'	2017. 4. 28.
20	일간지	국민일보	"어린이전용보건소·극장·장터생겼어요"	2017. 5. 1.
21	일간지	시정일보	성북아동전용보건소'인기짱'	2017. 5. 4.
22	일간지	한겨레 신문	"임산부 · 어르신들거기계세요"마을찾아가는주치의	2017. 5. 15.
23	일간지	내일신문	서울자치구 정책 전국 지자체에 퍼진다	2017. 5. 24.
24	TV	서울경기케이블딜라이브TVNEWS	보건소에서 엄마랑 놀자	2017. 6. 9.
25	TV	KTV	출산·육아통합서비스...아동전용보건지소인기	2017. 6. 27.
26	일간지	서울신문	지자체 머리 맞대 '저출산 걱정' 줄인다	2017. 7.11.
27	일간지	뉴스1	아기띠의재발견... '츄츄며산후몸조리하세요'	2017. 8. 3.
28	일간지	아시아경제	성북구정릉아동보건지소,육아맘을위한'아기띠라인댄스'반응폭발	2017. 8. 3.
29	일간지	헤럴드경제	아기와'츄바람'...성북구,라인댄스프로그램에주부'호응'	2017. 8. 3.
30	일간지	천지일보	성북구정릉아동보건지소,육아맘위한'아기띠라인댄스'반응폭발	2017. 8. 3.
31	일간지	전국매일신문	성북구정릉아동보건지소,'아기띠라인댄스'반응폭발	2017. 8. 3.
32	일간지	시민일보	성북구,육아맘들위한'아기띠라인댄스'호평	2017. 8. 3.
33	일간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한국과프랑스,요람부터책임지는아동의생존과발달	2017. 8. 3.
34	일간지	신아일보	성북맘들육아스트레스홀홀특화프로그램'아기띠라인댄스'인기	2017. 8. 4.
35	일간지	시대일보	성북구정릉아동보건지소,육아맘위한아기띠메고츄바람?스트레스폰다	2017. 8. 4.
36	TV	KBS 뉴스9	츄츄고영화보며...육아스트레스'홀홀'	2017. 8. 16.
37	TV	KBS 아침뉴스타임	츄츄고영화보고...육아스트레스'홀홀'	2017. 8. 17.
38	일간지	한겨레 신문	"친정 큰언니 노릇, 공무원 생활 중 가장 즐거운 일"	2017. 9. 1.



아이 낳고 싶은 동네가 있다?

'뉴베이비블' 신도시 자체 선정된 성북구의 저출산 극복 이야기

---중략---

아울러, 성북구는 전국 최초의 선진국형 '아동전용보건의소'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 3월에 본격 가동하는 아동전용보건의소는, 태아시기부터 아동기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신모가 필요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복한 건강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임 및, 영유아임들의 전용 커뮤니티 공간을 신설하여, 생애주기별 종합적인 정보를 연계하는 신개념 라이프 코디네이터를 통해 성북구 특화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아동전용보건의소, 아동청소년 돌봄시설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해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내 보건(건강)·보육(육아)·교육(돌봄) 인프라를 벨트화한 온 마을이 함께하는 통합서비스 지원체계가 될 전망이다.

1. 문체부 정책브리핑

[지역] 성북구, 전국 최초 아동전용 보건의소 문 열어

기사일련 2017.03.03 07:01 | 최종수정 2017.03.03 07:01

전국 최초 아동전용 보건의소 정릉아동 보건의소 개소, 6일부터 운영... 임신부 및 0-6세 아동 대상으로 출산에서 육아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마사이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전국 최초로 조성한 아동전용 보건의소인 '정릉아동 보건의소'가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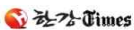
정릉동 164-62번지에 274.39㎡(약 83평) 규모로 조성된 정릉아동 보건의소는 교육실, 유희실, 검진실, 상담실, 수유실 등 시설을 갖추고 지난달 28일 지역주민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비롯한 사업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소식이 열렸다.

아동보건의소에서는 태아기부터 아동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건강교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주 양육자 건강관리 ▲성장단계별 신체활동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모성 및 아동을 위한 보건의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릉아동보건의소 개소식

3. 아시아 경제



HOME > 서울지역 > 성북구

성북구, 출산부터 육아까지 원스톱서비스 '정릉 아동 보건의소' 운영 시작

임산부 및 0-6세 아동 대상

유재태 기자 | 승인 2017.03.03 19:53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전국 최초로 조성한 아동전용 보건의소인 '정릉아동 보건의소'가 오는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정릉동 164-62번지에 274.39㎡(약 83평)의 규모로 조성된 정릉아동 보건의소는 교육실, 유희실, 검진실, 상담실, 수유실 등 시설을 갖추고 지난달 28일 지역주민과 김영배 구청장을 비롯한 사업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소식이 개최됐다.

아동보건의소에서는 태아기부터 아동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건강교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주 양육자 건강관리 ▲성장단계별 신체활동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모성 및 아동을 위한 보건의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5. 한강타임즈

저치소식

성북구, 전국 첫 아동 전용 보건의소

등록 : 2017-03-02 15:02

성북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릉동에 아동 전용 보건의소를 열고, 오는 6일부터 운영한다. 태아 때부터 6살이 될 때까지 아이들의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다각적인 육아 지원을 한다. 아동 대상 공공 보건 시설은 성북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만든다.

'정릉아동 보건의소'는 274.39㎡(83평) 규모로 교육실, 검진실, 상담실, 수유실, 놀이방, 커뮤니티 공간 등의 시설을 갖는다. 임신부의 건강 관리와 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등 보건의소의 기본 역할뿐 아니라 놀이 체험을 통한 놀이 교육, 초보 영아 대상 강박, 정보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운영 등 다각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릉아동 보건의소 이마선(37) 주무관은 "아동 전용 공공 의료시설은 아이와 엄마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온라인 카페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존의 마음 모임 등과 연계해 지역 육아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정릉아동 보건의소 설치를 위해 지난해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 공모사업에 응모해 사업 예산으로 시비 7억원을 확보하고, 구 예산 6000만원 을 더했다. 또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민건강위원회도 꾸렸다. 구청 건강정책과 김유선(57) 과장은 "임신과 출산, 육아를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 올해 석관동에 2호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북구의 출생아 수는 2010년 4409명에서 2015년 3514명으로 895명(20.3%)이 줄었다.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출생률은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쳤다.

박영태 기자 gangto@hani.co.kr

서울실업길라잡이 서울편(www.seoulband.com) 취재팀 편집

2. 한겨레 신문



성북구 전국 최초 '아동전용 보건의소' 건립

2017-03-03 08:27
-6일 정릉동서 개소

[헤럴드경제=이원일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전국 최초 '아동전용 보건의소' 운영에 나선다.

3일 성북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6일 정릉동 인근 274.39㎡ 규모로 만든 정릉아동 보건의소 문을 연다. 지난 28일에는 김 구청장과 주민 등 50여명이 모여 개소식을 열었다.

아동전용 보건의소는 태아기-아동기 중 >성장단계별 맞춤형 건강교실·신체활동 놀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주 양육자 건강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헤럴드 경제



HOME > 지역소식 > 임시포

성북구, 전국 최초 아동전용 보건의소 6일부터 운영

고수현 기자 | 승인 2017.03.03 19:5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전국 최초로 아동전용 보건의소인 '정릉아동 보건의소' 조성을 마치고 이달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구는 최근 지역주민과 김영배 구청장을 비롯한 사업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정릉동 164-62번지에 274.39㎡(약 83평)의 규모로 조성된 정릉아동 보건의소는 교육실, 유희실, 검진실, 상담실, 수유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동보건의소에서는 태아기부터 아동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건강교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주 양육자 건강관리 ▲성장단계별 신체활동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모성 및 아동을 위한 보건의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는 아동보건의소를 통해 누구나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는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육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영아모임 ▲정릉 놀이마당 ▲소셜네트워크(다들카페) 등을 운영하여 정보 교환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터뷰 세대인 젊은 엄마들을 위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여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 관계자는 신체활동 놀이프로그램을 양육자 및 또래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친동행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건강과' 아동의 놀 권리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동전용 보건의소는 김 구청장이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의 모자보건의소를 방문하고 확신을 얻은 정책으로 2015년 11월부터 추진, 지난해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 공모사업에 응모, 사업 예산으로 시비 7억원을 확보하고 구 예산 6000만원을 더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김영배 구청장은 "생애주기 첫 단계인 태아시기부터 아동기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한 아동전용 보건의소를 운영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릉아동 보건의소를 시작으로 석관동에 제2호점을 추진하는 등 권역별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시민일보

성북구, 정릉에 전국 최초 '아동보건의소' 설치... 6일부터 운영

2017년 03월 03일 (금) 16:03:10

이정애 기자 | jpd@news1.com



▲ 정릉아동보건의소(정릉아동보건의소) (자료: 성북구)

출산에서 육아까지 한스롭 서비스 SNS 통합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서울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조성한 아동전문 보건의소 '정릉아동 보건의소'를 오는 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총면적 164~62면지에 274.39㎡(약 83평)의 규모로 조성된 정릉아동 보건의소는 교육실, 유희실, 검진실, 상담실, 수유실 등 시설을 갖추고 지난달 28일 지역주민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비롯한 사업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소식이 개최됐다.

7. 천지일보

전국 최초 아동전문 보건의소 성북구에 문연다

정릉아동보건의소 6일부터 본격 운영

2017년 03월 05일 (일) 16:32:23

이은정 기자 | jid@shinailbo.co.kr

서울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조성한 아동전문 보건의소 '정릉아동 보건의소'가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정면적 164~62면지에 274.39㎡(약 83평)의 규모로 조성된 정릉아동 보건의소는 교육실, 유희실, 검진실, 상담실, 수유실 등 시설을 갖추고 지난달 28일 지역주민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비롯한 사업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아동보건의소에서는 태아기부터 아동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건강교실,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주·알콜지 건강관리, 성장단계별 신체활동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모성 및 아동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누구나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는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차세대가 아동보건의소를 통해 보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육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엄마모임, 정릉 플라마켓, 소셜네트워크(다음카페) 등을 운영해 정보교환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선제 6기부터는 영아돌봄을 위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해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다는 것이다.

또한 구 관계자는 신체활동 놀이프로그램으로 알뜰차 및 또래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통놀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건강'과 '아동의 놀 권리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생애주기 첫 단계인 태아기부터 아동기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기 가능한 아동전문 보건의소를 운영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릉아동 보건의소를 시작으로 석계동에 제2호점을 추진하는 등 권역별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 신아일보



11. KBS뉴스7

전국 최초 아동전문 보건의소 성북구에 문 연다

(서울=뉴스1) 정우성 기자 | 2017-03-03 18:49 송고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이 전국 최초 아동전문 보건의소인 정릉아동보건의소 개소식에서 태아전문 디자이너를 하고있다.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전국 최초로 아동전문 보건의소 '정릉아동 보건의소'가 6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74.39㎡(약 83평)의 규모로 조성됐으며 교육실, 유희실, 검진실, 상담실, 수유실 등 시설을 갖췄다.

태아기부터 아동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건강교실,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성장단계별 신체활동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육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엄마모임' '정릉 플라마켓' 등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아동전문 보건의소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2015년 프랑스 파리의 모차보건의센터를 방문하고 추진했다. 지난해 서울시 보건의소 확충 공모사업에 응모, 사업 예산으로 시비 7억원을 확보하고 구 예산 6000만원을 더해 본격화했다.

8. 뉴스1



10. 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출산에서 육아까지...국내 첫 '아동 보건소'의 실험



12. KBS 뉴스광장

성북구 정릉아동보건지소, '아기띠 라인댄스' 반응 폭발

뜨거운 여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육아스트레스 출몰
2017.08.03 14:11 입력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 육아맘들이 아기띠를 매고 춤바람 심매경에 빠졌다.

전국 최초 아동 전용 보건의료인 정릉아동보건의료소에서 운영중인 특화 프로그램 '아기띠 라인댄스'는 아기띠를 매어 놓고 따로 운동하기가 어려운 신수 엄마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여러 사람이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지어 주는 춤이다. 엄마의 건강도 챙기고 아기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크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라인댄스 모집권을 올리면 10분 안에 마감될 정도로 육아맘에게 인기 폭발적이다.

프로그램 계사편에도 "다른 엄마들과 신나는 시간을 보내면서 육아 스트레스가 다 사라졌다", "건강도 챙기고 신수 유증들이 해소됐다"는 등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영배 구청장은 "정릉 아동보건의료소가 육아맘의 소통창구 역할까지 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아기띠 라인댄스를 비롯해 아동은 물론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시범장'의 역할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일보

HOME > 지역소식 > 인서울

성북구, 육아맘들 위한 '아기띠 라인댄스' 호평

고수현 기자 승인 2017.08.03 13:5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 육아맘들이 춤바람이 났다. 무더위도 춤바람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구 육아맘의 마음을 빼앗은 춤은 바로 '아기띠 라인댄스'.

구에 따르면 아기띠 라인댄스는 전국 최초 아동 전용 보건의료인 정릉아동보건의료소의 특화 프로그램이다.

무더위에도 육아 때문에 아기띠를 놓을 수 없는 엄마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설됐다.

'라인댄스'는 여러 사람이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지어 주는 춤이다. 전신을 이용하므로 비만관리, 심폐기능 향상, 대사증후군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수 운동은 엄마 혼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기띠를 매어놓고 따로 운동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신수 엄마들의 건강관리가 어렵다는 게 보건지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한 생활시간조사(2014)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보다 여가시간은 103분, 건강관리 등에 투자하는 시간은 26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북구 아동전문보건의료소에서는 지난 5월 공공기관 최초로 엄마가 아기띠를 매고 아이와 함께 운동을 하는 '아기띠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반응은 폭발적이며, 엄마의 건강도 챙기고 아기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크다는 입소문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배 구청장은 "정릉 아동보건의료소가 육아맘의 소통창구 역할까지 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아기띠 라인댄스를 비롯해 아동은 물론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치병장'의 역할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아기띠 라인댄스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11시40분 진행된다. 아기띠 라인댄스 및 정릉아동보건의료소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은 다음 카페 '정릉아동보건의료소'에 가입 후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고수현 기자 smkh86@siminilbo.co.kr

31. 전국매일신문



서울 성북구의 정릉아동보건의료소는 태아기부터 유아기,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일상부담에는 복부 초음파, 영산 및 절본체,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영유아 대상으로는 건강 검진, 예방 접종, 육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다른 보건소의 구별되는 정릉아동보건의료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건지소는 매일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 및 놀이 교실 프로그램을 각 10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산부모와 남편은 순산체조를 배우고, 유아 양육자는 건강할 식탁을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동화를 구연하며 아동과 함께 편식 식품을 요리하여 먹는 피니쿠팅 교실도 있습니다. 황혼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조부모에게 올바른 놀이방법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다들키네 정릉아동보건의료소](#)에서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우리아이 건강 이슈'와 '아기띠 라인댄스'는 하루만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압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배우고, 건강과 발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매일 50~100명의 아동과 가족이 방문하는 보건지소는 '힐링연니 만들기'라는 얼마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인 이상의 엄마가 모여 신청하면, 주 2회 2시간씩 보건지소 내 커뮤니티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모임은 '아이'라는 이유로 눈총받는 아동과 엄마에게 변화가 머물 곳 뿐 아니라, 아동 건강 관련 정보 교환의 장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32. 시민일보

신아일보

승인내역하기 | 댓글내리기

홈 > 뉴스 > 전국 네트워크 > 서울

성북맘들 육아 스트레스 출몰

특화 프로그램 '아기띠 라인댄스' 인기

2017년 08월 03일 (일) 17:23:05

이준철 기자 jcklee@shinilbo.co.kr

서울 성북구 육아맘들이 춤바람이 났다. 무더위도 춤바람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성북구 육아맘의 마음을 빼앗은 춤은 '아기띠 라인댄스'.

3일 구에 따르면 전국 최초 아동 전용 보건의료인 정릉아동보건의료소에서 아기띠 라인댄스 특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라인댄스'는 여러 사람이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지어 주는 춤이다. 전신을 이용하므로 비만관리, 심폐기능 향상, 대사증후군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수 운동은 엄마 혼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기띠를 매어놓고 따로 운동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신수 엄마들의 건강관리가 어렵다는 게 보건지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한 생활시간조사(2014)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보다 여가시간은 103분, 건강관리 등에 투자하는 시간은 26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북구 아동전문보건의료소에서는 지난 5월 공공기관 최초로 엄마가 아기띠를 매고 아이와 함께 운동을 하는 '아기띠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엄마의 건강도 챙기고 아기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크다는 입소문이 난 것이다.

3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시대일보

2017년 08월 04일 (금)

성북구 정릉아동보건의료소, 육아맘 위한

아기띠 매고 춤바람? 스트레스 푼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 육아맘들이 춤바람이 났다. 무더위도 춤바람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성북구 육아맘의 마음을 빼앗은 춤은 바로 '아기띠 라인댄스'. 전국 최초 아동 전용 보건의료인 정릉아동보건의료소의 특화 프로그램이다. 무더위에도 육아 때문에 아기띠를 놓을 수 없는 엄마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설됐다. '라인댄스'는 여러 사람이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지어 주는 춤이다. 전신을 이용하므로 비만관리, 심폐기능 향상, 대사증후군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수 운동은 엄마 혼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기띠를 매어놓고 따로 운동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신수 엄마들의 건강관리가 어렵다는 게 보건지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한 생활시간조사(2014)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보다 여가시간은 103분, 건강관리 등에 투자하는 시간은 26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북구 아동전문보건의료소에서는 지난 5월 공공기관 최초로



아기띠를 매고 아이와 함께 운동을 하는 '아기띠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엄마의 건강도 챙기고 아기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크다는 입소문이 난 것이다. 김 영배는 "아기띠를 매고 춤을 추면 아기가 놀라지 않게 걱정했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고 보니 아기띠 편안하게 짊어 들어 있었다"면서 만족감을 표명했다. 프로그램 계사편에도 "다른 엄마들과 신나는 시간을 보내면서 육아 스트레스가 다 사라졌다", "건강도 챙기고 신수 유증들이 해소됐다"는 등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라인댄스 모질권을 올리면 10분 안에 마감될 정도로 육아맘에게 인기 폭발적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정릉 아동보건의료소가 육아맘의 소통창구 역할까지 하고 있어 보다 세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아기띠 라인댄스를 비롯해 아동은 물론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치병장'의 역할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정릉아동보건의료소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은 다음 카페 '정릉아동보건의료소'에 가입 후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34. 신아일보

KBS NEWS

춤추고 영화 보며...육아 스트레스 '출몰'

일렉 2017.08.16 (21:45) 수정 2017.08.16 (21:52)

뉴스 9



35. 시대일보

36. KBS 뉴스9

춤추고 영화보고...육아 스트레스 '출출'

일찍 2017.08.17 (08:48) 수정 2017.08.17 (09:07)

아침뉴스타임



37. KBS 아침뉴스타임

한겨레

“친정 큰언니 노릇, 공무원 생활 중 가장 즐거운 일”

2017년 09월 01일 (금)

우리 동네 이사 정봉아동보육교사 이민선 주무관

일찍이 보육원에 사는 중(중)은 자신이 사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육교사로서 가장 큰 즐거움은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라며, 특히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보육교사로서 가장 큰 즐거움은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라며, 특히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정봉아동보육교사 이민선 주무관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다. (가정 제공)

보육교사로서 가장 큰 즐거움은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라며, 특히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보육교사로서 가장 큰 즐거움은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라며, 특히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이민선 주무관은 보육교사로서 가장 큰 즐거움은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라며, 특히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보육교사로서 가장 큰 즐거움은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라며, 특히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보육교사로서 가장 큰 즐거움은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라며, 특히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보육교사로서 가장 큰 즐거움은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라며, 특히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이민선 주무관은 보육교사로서 가장 큰 즐거움은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라며, 특히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보육교사로서 가장 큰 즐거움은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라며, 특히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38. 한겨레 신문